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7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2월 17일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전남광주 통합법, 재정 조항 부실 설계 '무늬만 특례'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 충남대전·대구경북보다 현실성 떨어져
구체적 산식·비율 통째로 누락…중앙부처 반대하면 조항 자체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재정 특례조항이 타 지역 통합법안에 견줘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나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치밀하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3개 지역 통합법안 원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전남광주법안은 총 386조(부칙 제외)로 충남대전(314조)이나 대구경북(335조)보다 조문 수는 많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 자립권을 담보하는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전남광주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나 비율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법안은 제47조(국세 교부 특례)에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 1000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비율을 명시했다. 특정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도 교부 대상으로 적시했다.

즉, 정부와 협의 여지를 조문에 적시함으로써 법 시행과 동시에 수 조 원대의 국세 재원이 통합 지자체로 자동 유입되는 '확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안도 전남광주보다는 실리적이다.

제54조(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며 특정 세목을 명확히 지목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당에서 나온 법안임에도 충남대전은 '확보 가능한 세원'을 구체화한 반면, 전남광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칙 선언'에 그친 셈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겨울철 별미' 매생이 수확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앞바다 매생이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겨울철 별미이자 남도의 대표적 무공해 식재료인 매생이를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통과 최종 확정

대의원 특권 폐지 찬성 60.58%

한 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 대표가 내건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이다. 전당대회(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기존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고,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1인 1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께 상정된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투표 참여 위원 중 95.34%(49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빈 필 하모닉 앙상블 단원들의 모습. 〈SBU&Partners 제공〉

세계 3대 오케스트라 빈 필 앙상블 완도서 공연

오늘 오후 7시 2026 신년음악회

'클래식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지역에서 세계적인 명성의 클래식 공연이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빈 필하모닉 앙상블 2026 신년음악회'가 4일 오후 7시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빈 필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힌다. 매년 1월 1일 열리는 '빈 필 신년 음악회'는 전세계 클래식 팬이 고대하는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슈켈첸 돌리를 중심으로 한 빈 필 연주자 13명이 신년 음악회의 핵심을 소편성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공연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적 연주자들이 완도를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 같은 공연이 연이어 성사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번 공연은 완도군이 매월 마지막 주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기획됐다. 뉴욕 필 공연 당시 지역민의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연장에 관객이 몰렸고, 이를 계기로 지역 내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연을 주관한 글로벌 클래식 기획사 에스비유(SBU&Partners)의 유소방 대표는 "지난해 뉴욕 필 공연이 완도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연주자들 역시 관객들의 높은 음악적 이해도와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 경험이 올해 공연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완도문화예술의전당은 객석 수 492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빈 필이 그동안 무대에 올랐던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1517석)이나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05석) 등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크다.

유 대표는 "최정상급 연주자들에게 극장 규모나 관객 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며 "클래식의 유산을 더 많은 지역에 전하는 것을 오히려 의미 있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공연은 티켓 가격을 7000원으로 책정해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나 부산, 서울 등에서 열리는 다른 내한 공연이 3만~1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고은지 주무관은 "클래식 공연은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다소 낯선 장르였지만 점차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클래식 공연을 꾸준히 유치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00년 충장로 상권, 광주의 심장이 식어간다 ▶6면
KIA 아마미 캠프 - 광남고 출신 투수 김현수 ▶18면
전통예술연출가 진옥섭 담양문화재단 대표 ▶22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訃 告

중흥그룹 중봉(中峰) 정창선(鄭昌善) 회장께서
2026년 2월 2일 오후 11시 46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광주광역시 서구 VIP 장례타운 301호
발인일시 : 2월 5일 목(木) 오전 7시
장 지 : 화순 개천사

※ 평소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 망 인 : 안양임
아 들 : 정원주, 정원철
며 느 리 : 이화진, 윤지연
딸 : 정향미
사 위 : 김보현
손 : 정정길, 정민식, 정준식, 정서윤
외 손 : 김이석, 김이준, 김이열

장례위원장 한상원
2026년 02월 03일 빈소 연락처 : 062-521-4444